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29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하십시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창간호부터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침령의 날”을 준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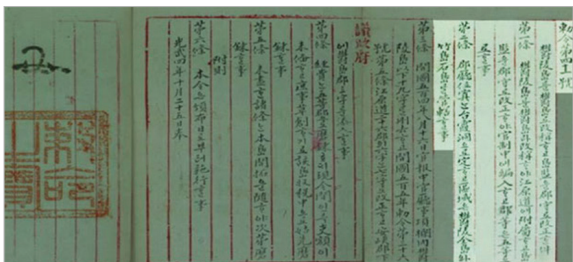


나홍주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구한말에, 일본인들이 불개항장인 ‘울릉도 및 독도’ 지역에 불법적으로 몰려들자, 조정은 1900년에 우용정(내무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국제현지조사단(일본영사 아카쓰카, 경부 와다 나베 및 영국인 E. Laporte를 포함)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1900.5.31. 현지에 도착한 조사단은 1주일간 현지조사 끝에 144명의 일본인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고, 출국 명령을 내렸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조정은 근대국 제법의 요건을 갖추어, ‘독도를 울도(울릉도)의 관할 하에 둔 다’는 명문규정을 둔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10.25.)를 반포하고, 동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일본공사관을 포함한 각국 공사관에 공시하였으나 어떤 공사관으로부터의 이의도 없었다. 이로써, ‘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이 국제법상 재 완성된 것이다(1699.1월 이후). 이것이 우리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10.25.)를 “독도침령의 날”로 호칭하는 이유이다. **항간의 말대로, “독도의 날”로 부른다면, 상기 국제법적 내역이 가려지고 만다.** ‘독도’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2006년 제정한 것은 ‘독도’에 대한 우리와 같은 상기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허구의 “00 날”에 불과하다. 결코 이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끝-

나홍주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10월25일을 “독도침령의 날” 이라고 불러야 한다. “독도의 날” 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칙령을 강조해서 국제 법으로 대한제국 땅이 된 것을 국제사회 알려야 한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후원금 주신 분

김석순 외 27명	176,000원
웹터택시기사 조합장들	134,000원
이원수 부산시 진구 개금동	20,000원

日외무성, 韓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
“사전동의 없었다” 반발... 영해 침범” 주장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5-18 10:59 송고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양조사선이 17일 오후부터 독도 주변 해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NHK 캡처) © News1

일본 정부가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역 조사활동에 대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한국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 2000’ 호가 전날 오후부터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 (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EEZ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산하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해양2000’ 호가 17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다케시마 서쪽 약 40km의 일본 EEZ에서 쇄줄 같은 물건을 바닷 속에 던져넣고 있는 것을 순시선을 통해 확인했다”며 “순시선에서 ‘(일본 측의) 동의가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단을 요구했으나 한국 선박이 활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해상보안본부는 또 “‘해양2000호’가 17일 오후 5시쯤 바닷속에서 쇄줄을 꺼낸 뒤엔 다케시마 서쪽 약 12km의 일본 영해에 들어갔다”며 “18일 오전 1시30분까지 일본 영해에 머물러 있었고, 오전 5시 현재는 영해에서 나와 일본 EEZ를 향해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사전에 일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외교부와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에 항의하고 조사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독도 돌아오는 국제요트대회

독도 돌아오는 국제요트대회 13일 개막
...총상금 6천만원 송고시간 | 2017/09/11 15:19



울진서 출발해 총 거리 1천km...10개국 100여명 경쟁경주를 펼치고 있는 다양한 요트 (대한요트협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세계 10개국 100여 명의 선수가 자웅을 겨루는 제10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경북 울진군 후포항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후포항 연안에서 열리는 인쇼어(In-shore) 경주와 후포항을 출발해 독도를 돌아오는 총 거리 1,000km의 오프쇼어(Off-shore) 경주 등 2개 종목으로 펼쳐진다.

종합 1위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상금 1천500만원이 주어지며 10위 선수까지 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번 대회에 걸린 총상금은 6천만원이다.

대한요트협회는 이번 대회와 더불어 전국대학생요트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독도 세일링 탐사, 관람정 탑승,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참여 희망자는 이메일 ksaf@sports.or.kr로 사전 접수하거나 현장 접수하면 된다.

정제묵 대한요트협회 회장은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내 최고의 요트대회”라며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땅 독도를 전 세계 요트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cycle@yna.co.kr (저작권재)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17/09/11 15:19 송고

다. 일본은 작년 4월과 6월에도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인 데 대해 자국의 ‘동의가 없었다’며 항의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 같은 항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ys4174@

일본, 방위백서에 13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기술

기사입력 2017-08-08 10:20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도 13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넣으며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에 넣었고,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지연상 이만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761 꼭 보세요**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이독도 침탈을 대비해서 행사와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국기사랑회, 부산흥사단, 대한민국상훈회, 푸에르토리코한인회, 환경21연대부산총본부, 독도국민연대, 독도문학작가협회,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랑문학회, 독도우리회,

독도정책연구회, 삼사오봉사회,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자유물물단어울림,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통일을실현하는사람들부산연합, 대한민국도덕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독도사랑세계연대, GPF지문회의,

1900년 대한제국(고종황제) 칙령 41호 117주년 “독도칙령의날”

독도 칙령의 날 독도 사랑 한마당

2017. 10. 25(수요일) 오후2시 초량 정발장군 동상

참여 단체 신청 : 010-4585-7600 / 010-6504-6510 / 010-8014-9887



독도칙령의날
10월25일



투에르토리코한인회이교자회장(좌)
워싱턴 DC 한인회
김수진교문(우)

전영하 경북도 독도정책관 “독도를 제대로 개방하겠습니다”

“이제는 문화와 산업의 관점에서 독도 바라볼 때”



“독도를 교육과 역사, 지리적 관점에서만 조명했다면 이제는 문화와 산업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독도에 드리워진 분쟁 이미지를 지우고, 열려있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영하(57) 경북도 독도정책관이 독도를 문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공공재단인 ‘독도재단’을 통해 독도관련 민간단체의 문화활동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17일에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거문도벚꽃노래전수회 공연과 학술대회가 열린다. 21일 서울 독섬한강공원에서는 ‘제8회 독도문화 대축제’, 같은 날 대구 두류야구장

에서는 독도사랑 음악회인 ‘한드립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라는 전 독도정책관은 “1년에 25만명 안팎이 독도를 찾지만 30분 정도 머무는데 그치는 데다 파도가 거세면 입도하기조차 힘들다”며 “방파제 설치로 독도 입항 성공률을 높이고,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독도카페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독도를 보다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도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그동안 외교 분쟁에 대한 우려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렸지만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독도카페 설립과 독도 데이터 공개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도정책관실 자체를 활짝 열겠다는 각오다. 전 독도정책관은 “군사 외교적 문제가 없는 선에는 국민 누구나 독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도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독도 홍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유일의 독도정책관을 맡고 있어 보람과 책임도 크다”며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독도 문제를 챙기고 있다”며 뿌듯해 했다. 전 독도정책관은 “교과서와 이론으로 배웠던 독도 사랑을 최일선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33년 공직의 마지막을 독도에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는 것을 알면서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 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활동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후원, 활동 전부터 하시는 분은 더 큰 독도 지킴이가 됩니다.

010-6504-6510. ds5ean@naver.com

월드컵 축구나 박근혜 탄핵처럼 2백만명 모이면 서명용지 내용이 이루어진다. 2백만명 모이자. 2천만명이 서명하면 정부가 안 할 수 없다. 내가 13만명 받았다. 나와 같은 사람 200명이면 독도정책은 바꿀 수 있다. 서명운동 하세요. <이상훈>

발굴됐다. 이 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1905년2월 각의 결정으로 “죽도(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영유한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공포한 뒤 독도를 부라부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20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와 영남대가 공동 개최한 독도 학술회의에서 1877년 이후 발행된 ‘시마네현통계서’(島根縣統計書)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 교수는 통계서의 분석 기점을 1877년으로 잡은 데 대해 그해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이 사실을 관리에게 주지시키라는 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을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일본은 이 자료를 외면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이만 아래주소에 본문이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790

서명운동합시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정원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기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받은분 이름) 전화
네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 010-6504-6510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온전동부원사) 독도이상훈 우편 47825
서명받은분 명단은 박물관에 영구보존되고 100명이상 서명받은 분은 증서를 드립니다.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는 ‘독도’ 입증할 구술록 나왔다”

이런 자료가 나와도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독도 이상훈

송고시간 | 2017/10/19 15:45

김영수 동북아재단 소장, 시마네현서 195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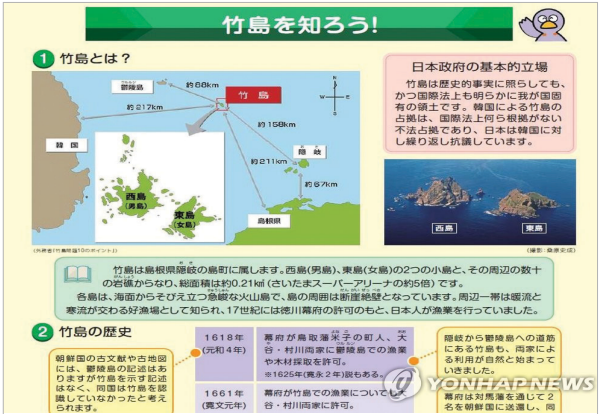
어부 구술 자료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울릉군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서 석도가 독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다.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독도의 명칭이 ‘돌섬(石島)-독섬(石島/獨島)-독도(獨島)’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본인의 구술록을 시마네현 총무부 소장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의 내용은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事)”인데, 일본 정부는 석도가 독도라는 주장을 증명할 문헌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 울릉도로 이주한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돌로 된 섬을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렀고, 이를 한자로 적은 것이 ‘석도’(石島)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쿠무라 아키라의 구술록. 붉은색 선 옆 문장이 ‘당시 조선인은 ‘망코섬’을 독도라고 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소장이 찾은 구술록은 1953년 7월 11일 어부였던 오쿠무라 아키라(奥村亮, 당시 43세)의 발언을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2과가 기록한 문헌인 ‘죽도어업의 변천’이다. 울릉도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는 오쿠무라는 “당시 조선인은 ‘망코섬’을 독도라고 했다.(當時, 朝鮮人は, ランコ島(竹島)を獨島(トクソン)) 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망코섬’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오쿠무라의 구술록에서 독도 옆에 기재된 ‘도쿠손’(トクソン)이라는 글자에 주목했다. 도쿠손은 ‘독섬’의 일본식 발음을 표기한 것이다. 김 소장은 “일본인의 구술에 따르면 일본인은 독도를 죽도(竹島)보다는 ‘망코섬’이라고 했다”며 “일본인도 독도(獨島)와 독섬을 동일하게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돌섬-독섬-독도 음운변화설이 힘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마네현 도교사무소 직원이 현지로 가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묻는 등 고심 끝에 정리했다’는 구술록의 해제를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생산한 문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해방 직후 국내에서 창간된 일간지 ‘한성일보’의 1948년 6월 13일자에도 ‘독도(獨島)는 우리의 섬. 원명(原名)은 돌섬(石島)’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독도에 대해 ‘원래 이름은 ‘돌섬’(石島)인데 이후 와전돼 ‘송도’(松島) 또는 독섬(獨島)으로 개칭됐던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동북아역사재단과 영남대가 20일 공동 개최하는 ‘근대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자료와 지도에 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재조명’ 학술회의에서 **지면상**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791> 카페주소로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日, 정부 홈페이지에 “독도=일본땅” 학교 부교재 게재…또 독도 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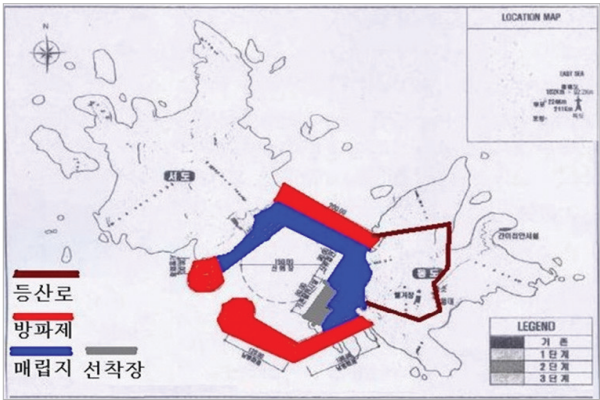
송고시간 | 2017/10/29 21:51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초·중학생 대상 교육 자료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올리며 또 영토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 정부는 29일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에 ‘영토와 주권에 관한 교육자료’라며 지자체가 만든 자료 2건을 게재했다. 해당 자료는 사이타마(埼玉)현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영토에 관한 팸플릿’



일본, 정부홈피에 “독도=일본땅” 초·중학교 부교재(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9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초·중학생 대상 교육 자료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올리며 또 영토 도발을 감행했다. 사이타마(埼玉)현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영토에 관한 팸플릿’의 독도 관련 부분. [일본 정부 내각관방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2017.10.29 bkkim@yna.co.kr

독도 개발 안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큰 섬이 두 개다. 두섬의 거리는 약 170m이다. 붉은 것을 방파제로 하고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를 만들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살게 하자는 개발안이다. 지금은 독도에 체류시간이 30분이다. 4~5시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독도선착장을 만드신 강향희 회장의 방파제 개발안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독도소식지 29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이번호는 사정상 늦었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과 시마네(島根)현 등이 만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학습 리플렛’이다. 사이타마현의 자료는 독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넣은 지도를 제시하며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에 의한 독도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가 없는 불법 점거다”고 적었다. 시마네현 자료는 1930년대 독도에서 일본인들이 바다사자 사냥을 하는 사진 등과 함께 일본과 독도를 역지로 연결하는 내용을 8페이지에 걸쳐 실었다. 자료는 독도를 ‘갈 수 없는 섬 다케시마’라고 소개하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사진을 게재했다. 두 자료는 각각 사이타마현과 시마네현에서 그동안 보충교재로 활용됐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들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지난 3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으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의 수업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교육이 의무화되는데, 이들 자료를 내려받아 일선 학교의 수업에서 사용하라며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것이다. 내각관방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이들 자료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부교재로 활용해 영토에의 이해를 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면 관계상**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789> 위 주소에 본문이 있습니다.

1. 방파제를 만들면 파도가 있어도 접안 된다.
2. 등산로를 만들어 동도정상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내려오는 길은 북쪽 방파제 쪽에 별도로 만든다.
3. 독도를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4. 서도에 10가구동도에 10가구정도 살게 한다.
5. 학교가 없으니 50~60대가 살면 된다.
6. 서도 어민숙소 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보존한다.
7.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 하니 개발 하여 사람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일자리)	성별	
이메일			
연락처	자택전화		사진
	휴대전화		
주소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도사수연합회 귀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 49384
TEL : 051-466-8761, FAX : 051-206-8761,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